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39)(3/10/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8 장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2 절

고전 4:13 -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고도.

아모스 5:13 -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요 16:3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 <그리스도> 아들이, 누가 너를 안 좋게 생각하고, 너에 대해서 네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도, 너는 그것을 언짢아하지 말라(고전 4:13). 너는 네 자신이야말로 가장 악한 자라고 느끼고, 그 누구도 너보다는 더 악하지 않다고 믿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너의 내면의 삶을 중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밖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들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좋지 않은 때에는 침묵을 지키고(암 5:13), 그 마음을 내게 향하여 나만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판단에 동요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작은 지혜가 아니다.

2. 네 마음의 평화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지 말라. 그들이 너에 대해서 좋게 말하느냐 나쁘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사람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된 평화와 참된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들은 내 안에 있지 않느냐?(요 16:33).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바른 말을 해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마음의 모든 불안과 산만함은 무절제한 사랑과 쓸데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생겨나는 법이다.

말씀과 해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내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말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긍정적인 말도 하지만 부정적인 말도 한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하고 위로가 되며 삶의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게 하지만, 부정적인 말, 특히 비방, 공격, 조롱, 심지어 저주의 말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게도 한다. 우리가 사람들로 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삶의 일부이듯이, 비방의 말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가르친다. 인생의 수많은 환난을 많이 겪었던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했다. 시 69:20 -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공홀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늘 비방 당하는 고통을 받았다. 렘 20:7-8 - 7.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실 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공격과 핍박에 시달리셨다.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처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의연함이었다. 막 15:3-5 - 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2)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라.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삶과 사명을 수행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견디실 수 있었다. 주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혹독한 핍박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다. 그 이유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울러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생각과 욕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지 않는다.

(3)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의로 심판하심을 잊지 말라. 성도들이 비방을 받아도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다윗은 시 69:20 에서 자신이 당하는 비방으로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에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다. 시 69:21-24, 29-30 - 21.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22.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덜이 되게 하소서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29.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기도는 그가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며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며 반드시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의한 비방에 위축되지 않고 담담하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다.

(4)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비방 받는 상황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방은 내가 잘해도 받을 수 있고 못해도 받을 수 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비방을 받는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비방받을 일을 해서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인 내 책임이 된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쳤다. **벧전 2:19-20 -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으며 의연하고 담담하게 나아가자. 아울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비방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돌아보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나가기 위해 힘쓰자.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최악으로 가득한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삶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부정적인 말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극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비방을 자초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속한 미국장로교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갱신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3.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 내 평생 소원 이것뿐